CHAPTER 01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는 하루의 일정은 계획하면서도,
정작 인생 전체의 방향은 묻지 않은 채 살아간다.
바쁘게 움직이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질문 앞에 서게 된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삶의 방향을 잃는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
나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지만
그 기준을 묻지 않은 채 익숙함과 관성에 따라 살아간다.
그렇게 쌓인 선택은 방향이 되고,
우리는 그것이 정말 나의 것인지 묻지 않는다.
결국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묻지 않은 시간 속에서 조용히 방향을 잃어간다.

인생의 방향은 외부가 아니라 자기 이해에서 시작된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른다면 삶은 쉽게 흔들린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더 정확한 자기 인식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사색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기준이다.

질문 순서

01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02 나는 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03 '나다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04 나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05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06 나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07 나는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08 나는 지금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고 있는가

09 나는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10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QUESTION 01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흔히 인생을 여행에 비유한다.
낯선 길을 떠나 예상하지 못한 풍경을 만나고,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한다는 점에서 인생은 분명 여행과 닮아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여행은 철저한 준비 속에서 시작된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볼지, 어떻게 움직일지를 미리 정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그만큼 우리는 '잘 떠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인다.

그렇다면 인생은 어떤가.
우리는 과연 그만큼 준비하고 시작했을까.
어디로 가고 싶은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지 충분히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인생이라는 여행은 단 한 번뿐이다.
같은 길을 다시 처음부터 걸어볼 수 없고, 되돌릴 수도 없다.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
방향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방향보다 속도에 집중한다.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것, 더 많이 이루는 것,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하지만 방향이 없는 속도는 결국 우리를 더 멀리 데려가지 못한다.
오히려 더 빠르게 흔들리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멈춰서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질문 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질문이 필요하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한다.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지,
매 순간 결정한다.
그리고 그 선택은 사라지지 않는다.
쌓이고, 반복되고, 결국 하나의 태도가 된다.
그 태도가 곧 나다.

그래서 지금의 나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선택과 반복이 만든 결과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나는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가볍게 선택할 수 없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우리는 종종 익숙함을 선택한다.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따라가면서 그것이 맞는 길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익숙함은 방향이 아니다. 그저 반복일 뿐이다.
편안함은 때로 우리를 지켜주지만, 우리를 멈추게 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한다.
이 선택은 정말 나의 선택인가.
나는 지금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정보 속에서 살아간다.
무엇이 좋은 삶인지에 대한 기준은 넘쳐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간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점점 자신을 잃어간다.
타인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고, 타인의 속도가 나의 속도가 된다.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질문이 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은 방향을 갖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방향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결국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 방향은 언제나 자기 이해에서 시작된다.

한 줄 정리

자기 자신을 묻는 질문은, 인생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다.

나다움 질문

1.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2. 내가 반복해서 선택하는 생각과 행동에는 어떤 패턴이 있는가?

3. 지금껏 살아오며 내가 가장 '나답다'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는가?